

1964年の 公共圖書館

成 宅 慶

1964年은 韓國圖書館界의 希望의해였다. 10年을 두고 애써 推進해오던 圖書館法이 昨年 10月 28日에 公布되어 今年은 法的인 뒷받침아래 갖가지 設計를 하여 보았다. 그러나 도리켜보면 法은 制定되었으나 施行令이 마련 되지 못하여 設計와 希望은 한갓 꿈으로 돌아가고 1964년이란 매듭을 우리는 그냥 또 넘기게 되었다.

다른 圖書館보다도 唯獨 法的인 뒷받침이 더 切實히 要請되는 것이 公共圖書館이다. 그래서 지난 一年동안 公共圖書館人들은 機會있을때 마다 무던히도 施行令의 制定및 그와 關連된 여러문제들을 案件으로 採擇하여 討議檢討하고 關係要路에 呼訴한바 있으나 別成果를 거두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되었다.

1. 1964년에 量의增加概況

韓國圖書館協會 編 “韓國의 圖書館”에서 于先 그 量의인 增加를 보면 解放以來 어느때 보다도 가장 많은 數의 圖書館이 增加되었다.

그 內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63年과 64年의 公共圖書館.比較表]

	도서직원 관수수		열람석	장서수	※자료구 입비
1963	27	237	5,469	634,268	6,988,700
1964	48	341	6,712	691,898	7,166,714
增加 數	21	116	1,243	57,630	178,014

(※資料購入費는 1963年과 1964年의 執行額임)

增加된 圖書館은 1963年에 京畿道內 龜津郡을 除外하고 各郡에 郡立圖書館이 設置되었기 때문이다.

이 郡立圖書館들은 貧弱한 豫算과 또 法的인 뒷받침이 없어 行政體系를 갖추지 못하고 館에 따라서는 有名無實하게 지나온곳도 있다. 이것은 어느 圖書館이나 마찬가지로 初創期에 따르는 鎖痛이다. 그러나 漸次的으로 기틀이 잡히고 豫算事情도 好轉되어 發展될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바이다.

京畿道와 같이 各道에서도 (勿論 모든 面에서 어렵겠지만) 이러한 勇斷이 내려져서 全國的으로 各郡마다 圖書館이 마련되어 지기를 嚮望하는 바이다.

2. 第1回 公共圖書館長會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圖書館週間이 今年에 마련되었고 또 이에따라 第1回 全國公共圖書館長會議가 이 週間에 開催되었다.

即 지난 4月 14日 午前 10時 國立中央圖書館에서 全國의 公共圖書館長 48名이 參席하여 公共圖書館이 當面한 全般的인 問題에 對해 討議 檢討하고 21個項目에 亶한 建議事項을 關係當局에 提出하였다.

이 第1回 公共圖書館長會議에서 特記한 事項은 우리나라 사람으로써 公共圖書館

의 創建者라고 할수 있는 現서울 市立鍾路圖書館의 前身인 京城圖書館을 私財로 創設하신 李範昇先生이 生存하신것을 알아 내어 全國圖書館人의 이름으로 感謝狀을 贈呈하고 記念品을 贈賜함으로써 同會議의 開會式을 더욱 빛내었으며 李範昇先生의 回顧談과 公共圖書館의 重要性을 先覺하시고 卽當時 어려운 與件下에서 여러가지 事業을 이룩하신데 感銘받은바 있었다.

3. 第3回 全國公共圖書館大會

9月 28日 大田市立圖書館에서 開催된 第3回 全國公共圖書館大會는 아직도 大會의 歷史가 日淺하여 未熟한 點이 많기는 하나 그래도 號1回, 第2회에 比하여 比較的 眞摯하고 切實한 當面 問題들의 解決策을 摸索하는 會議雰圍氣였다고 하겠다.

어느會議에서나 다 “發言을 하기 爲한 發言”이 많아 會議自體가 目的한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公共圖書館大會도 少數의 사람에 依하여 이러한 會議의 一般의인 通例에서 除外될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公共圖書館에 勤務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現職에서 너무도 賤視와 어려운 與件下에 處해 있기 때문에 이런會議에 呼訴하고 싶고 또 關係官廳에 建議해야 할 切實한 問題들이 많기 때문에 會議는 熱된 가운데 眞摯하게 進行되었다.

第1回 公共圖書館長會議에서나 第3回 圖書館大會에서 討議되고 建議된 內容의 骨子만을 大略 살피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圖書館政策의 確立과 公共圖書館의 所屬廳 問題

圖書館政策의 確立問題는 公共圖書館

뿐만 아니라 學校圖書館大會에서도 累次 建議된바 있다.

卽 文教部, 市道教育委員會, 市郡教育廳에 圖書館行政을 擔當할 機構를 編制하여 專門職을 配置하여 줄것을 骨子로 한다.

公共圖書館의 所屬廳 問題는 現下 市郡立圖書館들이 一群은 教育廳에 一群은 市, 郡에 所屬되어 一元化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政府組織法이나 圖書館法等에 依해 宜當 教育廳 傘下로 一元化 되어야 한다는 建議였다. 그런데 이 建議事項은 京畿道內 郡立圖書館의 경우에는 豫期치 못한 副作用으로 한동안 圖書館運營에 큰 支障을 招來한바 있었다.

(2) 公共圖書館의 財政問題

一定한 比率 乃至 基準이 없이 公共圖書館의 豫算이 策定됨으로 當該管理者가 圖書館에 對한 認識이 없을 때는 圖書館의 命脈만도 維持할 수가 없게 된다.

故로 圖書館豫算의 財源을 確保하기 爲한 方途로써 여러가지 案이 建議된바 있다.

(3) 公共圖書館의 職種 및 定員問題

職種問題(教育廳 傘下일 경우에는 現 國家公務員法 司書職種이 適用될수 있으나 市郡傘下에 所屬되어 있을 경우에는 地方公務員法이 適用되고 있다.) 定員問題, 司書職의 待遇問題, 時間外勤務手當問題 등이 論議 建議되었다. 特히 時間과 勤務手當問題는 公共圖書館職員들은 每日 平均 12時間을 근무하고 있으나 時間外 勤務手當을 支拂받지 못하고 酷使되고 있는 形便임을 指摘하고 있다.

以上 建議事項들의 內容을 살펴보면 모두가 圖書館法 施行令과 相關되는 것들이다. 앞서 적은 바와 같이 公共圖書館은 다른 圖書館보다 唯獨이 法的인 뒷받침이 切實히 要請되고 있는 것이다.

4. 公共圖書館界의 其他 特記事項

서울市立 南大門圖書館 新館 및 大田市立圖書館의 落成을 爲始하여 全南 康津에 郡立圖書館이 郡守, 郡內 有志 및 아세아

財團三者 協同으로 模範郡立圖書館이 設立되어 65年 1月中에 開館케 된點 그리고 春川市立圖書館에서 實施한 여러가지 독서주간 행사중 全市民에게 國民班을 통한 各家庭에 圖書貸出등을 附記할 수 있겠다.

以上 1964年의 公共圖書館界를 回顧하여 보면 답답하고 애태우는 가운데 그래도 크게 發展 成長했으며 희망에 찬 새해를 마저하는 것이 非單 筆者만의 생각이 아닐줄 안다. (國會圖書館)

學術活動의 열쇠! — 研究와 調查活動의 情報源 —

學術雜誌索引 1960

1960年度 國內에서 發刊된 學術雜誌 論文 10,240篇의 記事를 索引하여 收錄한 우리나라 初有의 綜合的인 定期刊行物의 索引集이다.

<模造洋裝, 4.6倍版 414面 값 會員 800원, 非會員 950원, 外國 12弗>

學術雜誌索引 1961~1962

1961~1962년에 國內 學術雜誌 353種에 發表된 19,282篇의 論文을 索引하여 著者名과 主國名을 가나다順으로 混合配列

<模造洋裝, 4.6倍版 790面, 값 會員 2,000원, 非會員 2,500원, 外國 20.弗>

教育機關, 各級學校, 社會, 圖書館, 研究機關, 學術研究家에게 必備의 圖書.

主文接受處: 韓國圖書館協會(서울 中區小公洞6)

配 本: 注文書 接受 即時로 送付해 드립니다.